

美 가상자산법 기대감… 비트코인 ‘12만 달러’ 연일 신고가

〈약 1억6570만원〉

비트코인, 전일대비 3.73% 올라
일주일간 상승률 11.97% 달해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가격 급등

“한두달 안에 12.5만 달러 가능성
기관투자자, 장기 포지션 유지할 듯”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미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비롯해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1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일보다 약 3.73% 오른 1BTC당 12만2314.1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0일 사상 최초로 11만20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나흘 만에 1만달러나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



1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내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한 상승률은 11.97%에 달한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급등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8.15% 상승한 304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총 3위인 리플(XRP)은 30.50%나 급등한 2.96달러에 거래중이다. 시총 4위와 5위인 바이낸스(BNB)와 솔라나(SOL)는 각각 6.01%, 10.23%의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인 것은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부터 일주일 동안을 ‘크립토 워크(가상자산 주간)’로 지정하고, 3개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가장 주요한 법안으로 여겨지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를 정의하고, 준비자산 요건, 발행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

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되는 만큼 사실상의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클래리티법)’과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CBDC법)’도 함께 논의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권한을 명확히 해,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다. CBDC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은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3개 법안 모두 이른 시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법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비트코인 급등이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 의해 주도됐다고 여겨진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두달 안에 12만50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분쟁으로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70대 인구수, 향후 1년 내 10대 추월한다

행안부, 10대-70대 수 격차 26만명
70대 인구수, 20대 추격도 ‘시간문제’

향후 1년 내 국내 70대 인구가 10대 인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또 하나의 역사적 통계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1980년대, 넘쳐나는 아이들로 인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뉘어 등교하던 시절도 있었다. 약 40년이 흘러 이제 10대는 연령대별 인구 순위에서 50대, 60대, 40대, 30대, 20대, 70대에 이어 7위로 처지기 직전이다. 그 뒤로는 9세 이하, 80대, 90대, 100세 이상뿐이다.

14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대와 70대의 주민등록

주민 수 격차는 26만 명까지 줄었다. 각각 462만 명, 436만 명이다.

두 나이의 간격은 1년 전인 2024년 6월 말(57만 명 차=463만-406만)과 비교해 절반 넘게 좁혀졌다. 2년 전인 2023년 6월엔 78만 명 차(467만 대 389만)였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시 10대는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 70대에 따라잡힌다.

또 70대는 향후 20대를 때서운 속도로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 20대 인구는 581만 명으로 70대(436만 명)보다 145만 명 많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70대 진입이 시작됐다. 아직 대부분이 60대인 이들은 오는 2033

년 말까지 모두 70대가 된다. 따라서 70대가 20대를 추월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9월 60대는 40대를 제쳤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당시 60대(777만242명)와 40대(776만9028명)의 인구 격차는 1214명이었다. 이후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 60대는 784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40대는 763만 명으로 줄면서 21만 명 차까지 벌어졌다.

국내 총인구는 6월 말 기준 51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지난해 말(5121만 명)에 비해 불과 6개월 만에 5만2000여 명 감소했다.

또 서울 인구는 정점 대비 100만 명 가량 줄어든 932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예방사례 소개

》1면 ‘모르면 당한다…’서 계속

디지털문해력이 높은 20~50대에서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했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후, 친분이나 애정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이다. 피해자에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반에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 사기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잦다.

로맨스스캠은 통상 외국인을 자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잦은 연락으로 친분을 쌓은 후 투자 정보나 데이터 비용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후 세금이나 환전 수수료 등을 이유로 반복해서 금전을 요구한다. 낯선 외국인이 SNS나 메신저로 먼저 연락하는 경

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신종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됐다.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등을 빙자해 예약이나 발주를 진행한 뒤, 고가 상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노쇼 사기’다. 식당·주점 등에 대규모 예약을 진행하고, 추후에 함께 결제하겠다고며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주류나 선물세트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유형이 가장 흔하다.

식당 뿐만 아니라 대학교, 병원,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인테리어·전자제품 판매업체 등에 대규모 사업을 제안한 뒤, 리베이트, 검수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위조된 계약서나 공문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주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단체나 기관에 재차 확인을 거

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습’하면 피해 예방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지킴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피해 사례 공개 시에는 실제 적발된 보이스피싱 발생 시의 통화 내용도 함께 공개해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형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시뮬레이션도 등장했다. AI기업 씽크풀이 산자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하마터면’은 음성, 문자, 영상 등 요소를 활용해 피해자의 시점에서 신종 보이스피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변동성 시나리오를 제공해 반복 학습 시에도 보이스피싱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에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상명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 기관이 다수 참여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대만 대학과 오가노이드 협력기반 다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만서 아시아 약학 컨퍼런스 참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아시아 주요 거점 대학들과 협력기반을 다졌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7월6~9일 대만 국립양명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약학 컨퍼런스(AsiaPharm VI)’에 참가해, 오가노이드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며 약학계의 아시아 주요 거점 대학과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 약학 컨퍼런스는 아시아 내 제약 및 생명과학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대표적 컨퍼런스로, 2016년 베트남 톤독탕 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교, 말레이시아 MARA 공과대학교 등을 거쳐 올해 6회째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의 국립양명교통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베트남 톤독탕 대학교 약학부

가 공동 주최로 ‘제약 과학 및 중개 의학 분야의 발전과 성과’ 중심으로 열렸다.

중점 분야로는 제약 생명공학, 중개 의학, 신경약리학, 천연화합물 기반 제약, 국제 교육협력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젊은 과학자 및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기술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오가노이드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정밀 의료와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한 약물 반응 예측, 독성 검증, 질환 특이적 스크리닝 기술 등 제약산업 내 오가노이드 응용의 실제 사례와 미래 가능성을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아시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및 인재 교류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농축산물 40% 할인… 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식품부, 17일부터 3주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1만2000여 곳에서 열린다. 특히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이 실시되며, 정부지원+자체할인으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축산물의 경우 이달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

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할인 한도를 1주일에 1인당 2만 원으로 정했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